

아동발달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결함요인 탐색에 관한 연구

이순배,* 김민정**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동명블루밍어린이집 원장**

Study on emotional factors navigation defects adversely affect the child's development

Soon-Bea Lee,* Min-Joung Kim**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Gachon University*

President, Dong Myeong Blooming Child Education**

Abstrac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utilize research and care in the field, navigate to the factors that negatively affect the child's development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Exploratory study of the development affected by age to be raised to the acquired write that emotional abilities are not genetically gifted. This is a crucial time for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skills in infancy and childhood entire life, and see this time the biggest impact of social environmen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made home amicably, the parents are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michim at home The. As such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emotional power of the child's parent role. Seen to suggest ways to develop children's development through these findings.

Key Words : children, child development, emotional defect

1. 서론

현대 사회는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사회로 아동을 올바르게 지도하기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가족구조가 대가족에서 핵가족화한 이래 가족 간의 여러 가지 문제로 가족구성원이 분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 사회문화적인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아동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초점도 변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호기심과 탐구심이 많은 아동을 시대에 맞게 정서적으로나 창의적으로

아동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실현시키기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바람직한 성인의 양육태도는 적극적인 노력과 자세를 요구한다.

생의 초기인 영아기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계는 어머니와의 관계라 할 수 있다.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은 일반적인 언어들의 다양한 의미를 배우고, 어휘를 습득하는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용어들을 사회화시키고 그들의 정서적 경험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을 허락할(Fivush, 1993) 뿐만 아니라 어머니

* 한국보육교사교육원 교학처장(교신저자)

** 동명 블루밍 어린이집 원장

논문 접수 2014년 10월 10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4년 11월 10일

와의 상호작용은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을 도울 뿐만 아니라 정서적 표현을 고취시킴으로써 정서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Bornstein & Tamis-Lemonda, 2001). 자녀가 최초로 접하는 경험의 대상이 어머니이며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화 되어감으로, 자녀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태도는 원활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Dunn, Brown, & Bearsall, 1991). 아동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대와 가정을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관계에 필요한 전략으로 발달시킨다(Hartup, 1983). 성장초기에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하는 것 즉,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수용 혹은 통제적인 반응인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Saarni, 1990)는 아동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 이혼과 별거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가정환경과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 입시위주의 교육 환경은 아동의 적응과 발달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Kang, Jang, & Jung, 2006). 작금의 사회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조기교육이 강조되어 과거에 비해 많은 아동이 어린 시절부터 보육 및 교육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서 아동은 일찍부터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경험한다. 아동이 원만한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또래 관계의 적응을 비롯한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발달에 있어 중요성이 강조 되어 왔다(Anderson & Messick, 1974; Chen, Rubin, & Li, 1995; O'Malley, 1977; Parker & Asher, 1987; Raver & Zigler, 1997; Waters & Sroufe, 1983).

이러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한 상당한 연구들은 부모가 적절한 부모 역할을 할 경우, 자녀는 또래관계에서 적응력·수용력이 높고 또래관

계가 좋으며, 자아존중감·가치감이 높고, 유능감과 적응발달이 높음을 보였다. 하지만 부모가 적절한 부모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자녀는 또래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부정적 자아개념을 갖고 있는 경향이 높았다.

아동기는 발달적으로 사회적 상황에 반응하는 많은 방법을 배우고 시도해 보는 시기인 것을 감안할 때, 이 시기의 부모 역할은 아동의 정서적 애착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아동은 지속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성장하고 발달한다. 부모는 자녀가 사회적으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아울러 성장과 변화에 맞는 상황에 행동이나 태도를 보임으로써 자녀와의 갈등을 감소시키려는 행동을 보일 것이다.

Goleman(1995)은 사회적 유능성에서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기술은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표현함으로써 타인의 감정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능성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에서 대인관계와 관련된 정서적 능력이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김경희·황혜정(1999)도 정서능력이 높은 사람은 사회성이나 대인관계 기술이 원만하고 사회적응 능력이 높으며, 정서를 분명히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아동일수록 문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며, 개인의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의 형성 및 유지를 잘한다고 하였다. 정서조절 능력이 뛰어난 아동일수록 사회적 유능성이 긍정적으로 평가(Eisenberg & Fabes, 1992; Hubbard, Coie & Dodge, 1994)된 반면에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지닌 아동들은 정서조절이 잘 되는 아동들에 비해 대인관계에서 융통성이 부족하고 고립적인 행동을 많이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긍정적 태도와 그 형성이 정서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전제되어 있다.

또한 Goleman(1995)은 정서능력을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것으로써 연령과 발달단계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인간의 전 생애의 아동기는 정서능력이 발달하는 결정적 시기¹⁾라고 하였다. 이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은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는 가정(Saarni, 1999)임을 미루어볼 때, 가정에서도 부모 변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임을 많은 선행연구로부터 알 수 있다. 즉, 부모 역할은 아동의 정서적 능력의 발달에도 중추적 역할임을 가정할 수 있다.

Belsky(1984)도 합리적 지도, 일관성 있는 훈육, 애정적 태도 등이 아동의 사회적 발달이나 지적발달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애정적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최정미, 2002: 재인용). 어머니가 자녀를 애정적이고 일관적 태도로써 양육할수록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은 긍정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권윤정, 1999; 박응임, 1998; 박주희, 2001; 손승희, 2002; 최정미, 2002; Dekovic & Janssens, 1992; Hart, DeWolf, Wozniak, & Burts, 1992).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에 의해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집단 내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대인관계에서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아동이 점차 늘어나고 사회적 부적응의 극단적 현상으로 '집단 따돌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 아동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인 것과 관련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도 추가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다양한 측면들로 구성되어져 있고, 하위요인들은 서로 긴밀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어 아

동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Putallaz & Heflin, 1990)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아동기는 결정적 시기에 맞게 아동발달에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부모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결국 정서적인 능력은 사회적으로 타인의 내적 심리상태인 사고나 의도, 동기 및 정서적인 반응 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인간관계에서 타인의 정서에 대한 이해능력이 사회적으로 관계형성을 하는데 핵심적인 요인이 되므로 정서적인 능력은 사회적 성취감을 이어 줄 강한 토대로 설정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여러 맥락에서의 관련 요인들의 제시가 미미한 실정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아동발달의 긍정적인 요인을 파악하면서 부정적인 정서적 결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 측면의 관점으로 나누어 모색하는 것도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2. 각 측면으로 본 아동발달의 정서적요인

아동은 자신의 주변 환경에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의미를 해석하여 정서적으로 반응하고자 한다. 또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러한 능력이 부모와 아동 간 상호작용의 양과 질의 정서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여 여러 상황에서 타인의 정서를 바르게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주요 요인이 된다. 이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1 아동발달에 관련된 개념적 정의

인간은 수정의 순간에서부터 시작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경험하며 발달해 간다. 바로 이 발달(development)은 변화를 의미한다. 즉, 발달은 인간의 수태로부터 사망까지 육체적·정신적 기능이나 사회·문화적 기능에 있어 변화가 발생하며 인생의 생활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이다. 또한 발달은 신장,

1) 인간의 발달에는 발달이 가장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최적의 시기가 있으며, 이 시기를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라고 한다. 이러한 시기는 인간발달의 여러 측면에 걸쳐 있는데, 특히 일생의 기초가 형성되는 아동기에 여러 번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즉 인간의 발달에서 어떤 특정한 발달 과업을 성취하는 데는 가장 적절한 시기가 있으며, 이 시기를 놓치면 다음 시기에 보완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체중, 학습한 개념지식의 수 등과 같이 양적인 변화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인 능력, 인지특성과 같은 질적인 변화도 포함하며 발달은 상호적이면서 추상화된 것이다. 아울러 인간의 전 생애를 통한 발달과정은 어떤 특성이 양적으로 증가하거나 질적으로 유능해지는 긍정적인 변화와 양적으로 감소하거나 질적으로 퇴색하는 부정적인 변화를 포함하기도 한다. 이러한 발달 변화의 속도는 개인의 행동양상이나 기능의 발달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서(emotion)는 주관적으로 의식되며 현상적인 체험을 통해 일어나는 느낌(feeling), 불분명한 선행사건을 통해 발생하며 장시간 지속되는 기분(mood)과는 구별되는데 뚜렷한 선행사건을 지니며 단기간으로 지속되고 발생한 것을 해소하려는 성향을 지닌다. 이러한 정서는 인간 생활에 있어 어떠한 생각이나 행동에 맞물려 발생하는 인간능력 중 또 하나의 감각지각 능력이다. 이것은 기분이나 분위기로써 긍정적, 부정적, 감정이입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아동의 정서 상태는 인지기능의 효율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고 있다. 정서적으로 교란된 상태에서는 주의집중력 상에 어려움이 나타나 궁극적으로 잠재된 지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인 양상을 드러낸다. 정서안정은 아동의 학습성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학습하는 시간이나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저장된 지식들을 잘 인출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서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유쾌한 정서 상태는 불쾌한 정서 상태보다 더 많은 양의 정보를 활성화시키고 정보의 수행을 촉진시킨다.

예전에는 흔히 아동기와 청년기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중년기 이후부터 노년기는 쇠퇴로 인한 부정적 변화라는 관점에서 발달을 이해해 왔으나 최근의 밝혀진 연구들에 의하면, 노년기에도 분석, 통합, 추론, 문제해결능력 등 여러 영역에서 긍정적인 발달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altes, 1987).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에는 발달의 개념을 수태에서 청년기에 이르는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면, 최근에는 보다 더 넓은 의미로 확대되어 수태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적 변화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2.2 정서이해의 관점

2.2.1 아동의 관점에서의 정서이해

Harris(1990)에 따르면 정서 이해는 자신이 느끼는 정서와 타인이 표현한 정서에 대한 것을 발달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전반적인 과정으로 특별한 정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개인이 가진 도식개념에 각자의 상황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Denham(1998)은 아동기의 정서이해의 중요성을 아동의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 조절의 역할로서 취학 전 아동들이 자신이 경험한 정서를 다루고 그 정서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시도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아동의 정서적인 특징이 평생 동안 변하지 않을 경향이 높다는 결과가 지속적으로 밝혀졌다. 정서 이해는 정서지능에 영향을 끼친다. 개인의 정서적인 개인차는 성인기 성공의 주요한 예측인자가 될 수 있으며(Goleman, 1995), 아동기에서 청소년기 사이의 기간이 정서학습의 결정적인 시기로 알려져 왔는데 이 시기의 정서학습은 발달 및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정서학습을 통한 정서 이해는 정서지능을 위한 필수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Denham(1986)은 지난 20년간 아동들의 정서 이해의 변화는 생후 18개월부터 취학 전에 걸쳐서 발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Pons, Harris, Rosnay(2004)은 아동을 위한 정서 이해의 아홉 가지 요소는 일정한 발달적 단계를 지니고 있는데 이 아홉 가지 요소를 세 개의 수준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정서의 외적인 영역에 초점을 맞추는 첫 번째 수준은 정서의 의식적인 면을 설명하는 두 번째 수

준을 이해하기 위한 선수과정이다. 또한 두 번째 수준은 정서의 반영적 측면을 설명하는 세 번째 수준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며, 계층적 구조화를 지닌 세 개의 수준은 다음과 같이 그 수준에 속하는 요소들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수준은 내적인 정서의 이해로 정서의 외현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 수준은 정서 이해에 있어서 특별한 추론이 필요 없는 단계로 타인의 표정을 읽고, 정서를 명명하며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또한 정서가 발생한 외형적 원인을 이해하여 정서에 대한 외적 귀인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수준은 의식적 정서의 이해로 정서의 조직화된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과 타인의 내적인 이유를 알아야 추론할 수 있다. 의식적 정서의 이해 요소는 타인의 바람과 믿음, 알기와 다시 떠올리기를 포함한다. 이 단계에서는 정서와 바람의 연관성에 대해 먼저 이해하고 타인의 바람을 인정하며, 개인의 믿음이 사실보다 더 우선시됨을 이해한다. 바람과 믿음의 이해는 정서가 주관적인 것이며 현재의 내적 경험이 중요한 토대가 되는 반면, 다시 떠올리기는 과거의 내적 경험이 정서에 중요하며 현재 정서로 이어지기 위해 경험을 유도하는 적절한 단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수준은 반영적 정서의 이해이다. 이는 정서의 반영적이고 반추적인 면을 이해하는 것으로, 자신과 타인의 상황에 대한 다양한 추론이 필요하다. 표현된 정서와 개인의 속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전제하에 정서조절을 통한 정서 표현규칙의 습득이나, 마음 숨기기가 이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학자들에 의한 아동의 정서 이해에 대한 관점을 종합해 볼 때, 혼합정서와 양가적인 정서의 이해, 도덕성 및 자부심 등의 복합 정서를 포함한 개인차를 존중하여 발달에 적합한 아동의 정서적 함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2.2 어머니의 관점에서의 정서이해

①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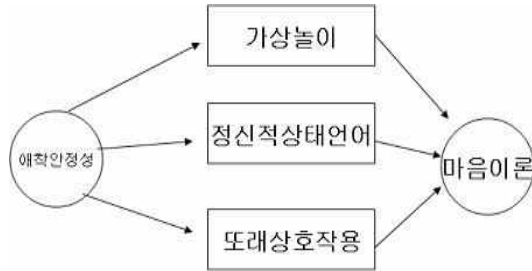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아동의 정서 능력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Denham(1993)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의 정서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표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더 자주 하게 되고, 반대로 부정적으로 반응한 어머니의 자녀는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자녀의 정서표현에 부모가 아동의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 수용적이고 공감적으로 반응하면, 아동은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타인에게 공감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

Hoffman(1983)은 아동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대해 위로해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어머니는 아동이 긍정적인 방식으로 정서를 표현하고 조절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의 하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라고 주장하였다.

이미 많은 연구들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다양한 영역의 아동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Eisenberg, Farbon, Schaller, Carlo, & Miller, 1991; Eisenberg, Farbon, Carlo, Troyer, Speer, Karbon, & Switzer, 1992). 어머니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변인 중의 하나는 아동의 기질적 특성이다. 이 아동의 정서적 기질 특성이 긍정적일수록 엄마의 행동이나 언어적 자극에 더 반응적이며, 역으로 어머니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행동을 더 잘 유발시킨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최근에는 애착문제가 일어난 경우 추후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인 사회인지 능력에 결함을 보

인다는 연구가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른 치유적 접근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림 1> 애착안정성과 마음이론의 관계

Fonagy(1998)은 애착문제란 아동과 양육자간의 관계 질로부터 기인한다고 보았다. 즉, 양육자가 아동의 심리상태에 대해 얼마나 민감한지가 아동의 애착유형을 구분하며, 아동의 애착유형에 따라 그 아동이 성취할 수 있는 마음 이해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서혜린·이영(2008)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아동 정서조절전략 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아동의 긍정적인 정서표현과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엄격하고 통제적인 수용태도가 아동의 공격전략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아동의 호기심이나 행복정서 혹은 두려움의 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엄격하고 통제적으로 반응할수록 아동이 공격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자녀의 정서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한 어머니의 자녀는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많이 하였다는 Denham(1993)의 연구결과와 상통하며, 엄격한 양육태도를 취하는 어머니는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정서와 관련된 표현을 많이 통제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머니의 자녀는 자신의 정서를 다루는 것을 불안해하고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자주 보인다고 한 Eisenberg(1993)의 연구결과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박서정·김순옥(2005)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칭찬이나 따뜻함, 또는 자녀로부터 추문하도록 하는 논리적인 훈육방식은 자녀의 성취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그렇지 않은 양육을 받은 자녀는 부적응적 정서조절을 행하며 타인으로부터 자극받는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자 공격적인 전략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즉, 자녀의 긍정적 정서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어머니의 태도는 자녀의 적응적 정서조절에 토대가 되지만 엄격하고 통제적인 어머니의 태도는 자녀의 공격적이고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을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 수용태도는 아동의 긍정적 대처전략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두려움과 같은 유아의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허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아동은 긍정적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Hoffman(1983)이 설명한 아동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대해 허용적이고 수용적인 어머니의 자녀일수록 긍정적인 정서표현과 전략을 사용한다는 연구와 일치한다. 김순정(2000)의 연구에서도 행복정서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의 태도가 애정적이고 수용적일수록 아동의 과잉, 공격, 강박행동과 같은 정서적 부적응 행동이 적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불안한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위로 및 격려와 같은 지지자의 역할을 해 줌으로써 자녀는 자신의 정서를 이해받고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되어 정서적인 안정을 얻는 동시에, 어머니의 정서반응을 학습하고 모방함으로써 추후 긍정적인 정서조절전략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역적 추론은 Albrecht, Burluson과 Goldsmith (1994)의 연구에서 전 거를 찾을 수 있는데 불안, 슬픔, 분노와 같은 아동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비지지적인 반응은 아동의 안정감을 감소시켜 정서조절이 요구되는 사회적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부모가 그 정서를 이해해 주고 수용적으로 받아들여 주면 아동은 사회적 관계에 대해 안정감을 느끼게 되며 자신의 정서조절 행동을 비교적 긍정적인 방향으로 표출한다는 것이다.

셋째,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 수용태도는 아동의 회피 및 지원전략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행복과 같은 아동의 긍정적인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엄격하고 통제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아동은 회피 및 지원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Eisenberg와 Fabes(1992)가 설명한 아동의 행동에 대해 어머니가 처벌적 반응이나 스트레스 반응을 보일수록 아동이 화가 났을 때 회피반응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로 집약할 수 있으며, 아동의 자유로운 정서 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엄격하고 규제적인 태도가 아동에게 심리적인 위축감을 제공하고 자신감을 결여시켜 소극적인 대처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음을 함의한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에 있어서는 어머니가 긍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할수록 아동은 공격 전략을 적게 사용하고, 어머니가 부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할수록 아동은 공격 전략을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의 부정적 정서에 자주 노출된 아동들이 부모에게 부정적 정서로 더 많이 반응하고,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어머니의 자녀가 긍정적인 정서보다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Cummings et al., 1989)는 연구 결과와 같다. 실제로 가정에서의 잦은 적대감과 부정적 정서에의 노출이 있을 경우, 아동은 정서조절능력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Cummings & Davies, 1996) 밝혀낼 수 있다.

②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아동의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좀 더 효율적인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양육스트레스는 최근 심리적 측면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질을 결정짓는 주요 개

념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높은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Abidin, 1992).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높은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민감성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Crnic & Greenberg, 1990). 자녀 출산 후, 경험하게 되는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감과 경제적 부담감, 신체적인 피로가 자칫 양육스트레스로 발전하게 되며, 일상의 양육문제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있는 어머니의 경우, 아동의 상호작용 시, 부정적 양육행동을 보다 많이 사용하여 궁극적으로 아동의 사회, 정서, 인지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Abidin, 1992).

Crnic과 Booth(1991)는 양육스트레스를 아동의 발달과 행동에 관련된 부모의 인식과 개인적 성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변화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이와 같은 변화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정상적인 생활의 일부로 인식하였다.

어머니는 양육스트레스에 따라 비일관적인 양육방식을 보일 수 있으며, 비일관적인 양육형태에 따라 아동의 스트레스에 의해서 정서적 발달과 신체적인 영향 등 다각도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정서성과 아동의 정서발달의 함수관계를 알아보는 선행연구에서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은 아동의 분노 정서표현 및 정서인식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성은 아동의 슬픔 정서표현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안라리, 2005).

양육스트레스의 대처능력의 중요성을 언급한 Lazarus와 Folkman(1984)은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개인의 수용 능력을 초과한다고 평가되는 특정한 내적, 외적 요구들을 다루려는 개인의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노력들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

안에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개인의 대처결과 의 성공여부에 상관없이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 하고자 하는 개인의 모든 노력도 포함한다. 이들은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첫째, 유해한 환경조건을 바꾸거나 개선하는 것이다. 둘째, 부정적인 사건이나 현실을 견디는 것 혹은 그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다. 셋째, 긍정적인 자기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넷째, 정서적인 평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타인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Fishbein, M. S., & Ajzen, I(1975)는 부모의 양육방식을 하나의 문화양식으로 보고, 이는 부모가 자녀의 성장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이라고 표현하였다. 양육스트레스의 원인을 양육자의 양육 형태에서 찾아보기 위해, Schaefer(1959)의 circumplex-model에서 양육자의 양육형태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 부모의 애정-자율적 태도는 자녀에게 자유, 허용적, 민주적, 수용적, 협동적인 태도를 보인다. 둘째, 애정-통제적인 태도는 애정을 주면서도 자녀의 행동에 많은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의존성 보장, 과보호, 소유적인 태도를 보인다. 셋째, 적대-통제적 태도는 자녀에게 관대하지 않고, 거부적인 태도를 보인다. 넷째, 적대-자율적인 태도는 자녀를 수용하지 않으며 자녀 마음대로 행동하게끔 하는 것으로서 거리감, 무관심, 태만, 냉담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자녀의 정서지능 간 부모의 자율적인 양육태도에 따라 자녀의 정서지능 간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자료를 통해 살펴 본 결과, 자녀의 양육방법 특히, 아동기의 자녀를 둔 양육자의 양육방법에 따라 자녀의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인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러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어머니의 양육 및 일상의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정신건강과 아동의 부적응적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아울러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환경적 요인 중에서 정서적 발달이 가장 큰 것으로 차지하였다. 이러한 요인에 기인하여 외부적으로 보여 지는 아동의 기질적인 형태를 양육자는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양육스트레스를 아동에게 보여주는 기질적인 이유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양육자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양육자에게 최초의 원인을 찾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3 교사의 관점에서의 정서 이해

① 교사-유아와의 관계 형성

아동기의 부모, 교사 및 성인들과 아동 간의 상호작용은 변화와 가능성이 높은 아동의 문제행동을 개선시키고 이후의 긍정적 발달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교사-아동관계, 그리고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탐색하고자 한다.

아동이 생애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사회생활은 기관에서 이루어진다. 이 기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동에게 교사와 맺게 되는 관계는 아동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아동관계는 애정적이며 친밀할 수 있고, 형식적이거나 갈등적인 관계일 수도 있다. 친밀한 교사-아동 관계는 아동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며 효율적인 사회적 기술을 응용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친밀한 교사-아동 관계는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적 상황이나 일상적인 수업에서 아동이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해 준다(Rudasill & Rimm-Kaufman, 2008). 반면에 교사와 갈등적인 관계를 경험한 아동은 어린이집을 회피하고 외로움을 느끼며 부진한 학업성적과 사회적 능력을 보일 수 있다(Birch & Ladd, 1997; Rudasill & Rimm-Kaufman, 2008). 교사와 아동 간의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견인할 수 있으며 아동과 어머니 간의 불안정한 애착을 부분적으로 보상할 수 있다. 강정원·김

순자(2006)에 의하면 교사-아동관계는 아동의 적응 및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교사-아동관계는 친밀감, 갈등, 의존성의 3가지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데, 갈등적이며 친밀감이 낮은 교사-아동관계는 아동의 불안과 위축 등의 내재화 행동문제뿐 아니라 공격성과 과잉행동 등의 외현화 행동문제와 관련이 있다. 부정적인 교사-아동관계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아동의 문제행동이 지속되거나 보다 심각해지기도 한다(Myers & Pianta, 2008).

Birch와 Ladd(1997)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교사-아동관계의 세 측면인 친밀감, 갈등, 의존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친밀감(closeness)은 교사와 아동 간에 존재하는 온정 및 개방적 의사소통 정도로서 아동발달의 교육 환경에서 아동에게 정서적 지지와 안정감을 주는 기능을 한다. 교사와 따뜻하고 애정적인 유대관계는 아동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와 정서를 갖게 하며, 교사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해 아동교육기관의 생활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빠른 적응을 이끌 수 있다. 둘째, 갈등(conflict)은 교사와 아동 사이의 라포(rapport)와 조화로운 상호작용이 부족한 것이 특징이다.

셋째, 의존성(dependency)은 교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매달리는 아동의 행동을 말한다. 따라서 교사는 아동에게 있어서 애착 관계의 형태의 표상이며, 또래관계를 지향하고 탐색하기 위한 초석을 제공하는 자로서 기관에서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은 아동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② 교사가 바라 본 아동의 문제행동

교사의 입장에서 아동의 문제행동에 있어서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한 아동은 또래관계가 좋으며, 친사회성을 나타내고, 공격적 행동의 비율이 낮으며, 아동이 교사와 친근감을 형성했을 때 친사회성이 높고, 갈등의 정도가 높을수록 불안-공포 반

응과 공격성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사와 보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수록 학급에 협력적이고 상호작용이 활발하고 독립적이며, 과잉행동·공격성 등의 외재적 행동문제가 적고, 사회적으로 위축되지 않는 아동들의 성향을 볼 수 있다. 반면에 갈등적 관계를 형성하는 아동일수록 사회적 협력성 및 상호작용과 독립성이 낮은 성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자기중심성·행동과다·공격성 수준이 높고 사회적 위축 및 불안 수준의 아동들을 비교할 수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교사와의 관계가 갈등이 적고 친밀할수록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이 높았고, 교사와의 관계가 갈등적이고 의존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분노·공격성이 많았으며, 교사와의 관계가 갈등적이고 친밀감이 적을수록 아동의 불안이 적응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교사와의 친밀하고 따뜻한 관계 형성은 아동의 정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그 의미가 크다.

3. 정서적 관계에 미치는 근거

아동과 양육자 사이의 사랑의 매듭 혹은 정서적 유대(bonding)는 아이의 젖을 빠는 행동, 울음, 엄마에게 안기려고 하는 것, 엄마의 눈을 쳐다보는 것과 같은 애착행동(attachment behavior)을 통해 어머니의 사랑과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어머니가 아동에게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면서 아동의 신호에 적절하게 반응을 보일 때도 사랑의 매듭이 잘 형성된다. 이런 점에서 아동과 어머니와의 관계는 적극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됨을 여러 이론의 관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영국의 정신분석자인 John Bowlby의 애착이론(attachment theory)과 오스트리아 학자 Konrad Lorenz의 동물행동학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후 초기에 나타나는 본능적인 인간의 행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또한 Erik Erikson은 아

동기의 주된 과제 중 하나가 에릭슨의 성격발달 1단계인 기본적 신뢰감 또는 불신 형성의 이론에서도 알 수 있다. 그는 아동기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아동기에 형성된 신뢰감이 미래의 대인관계에서 적응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아동의 기본적 신뢰감은 어머니로부터 받는 보호와 사랑, 접촉을 통하여 미지의 세상이 근본적으로 자신에게 긍정적이며 세상이 자신을 수용한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그 결과 자기 자신과 어머니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과 안정감을 형성한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서 주위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신뢰감이 점차 확대되어 가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으로 발달해 갈 수 있다는 데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반면 만약 이 시기에 신뢰감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 배고파서 또는 기저귀가 젖어서 울어도 어머니가 적절한 반응을 해주지 않는다면 아동은 주변 세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 즉 불신감을 가지면서 정서적 결함을 갖게 될 것이다.

Jean Piaget는 아기자체를 호기심이 강한 존재로 인지 발달 중 감각운동기를 통해 정서적 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간주하였다. 새로운 상황에 부딪치면 아동은 행동을 일시 중단하고 나름대로 머리 속에서 인지적 노력을 한 후에, 그 새로운 현상이나 사물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아동들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수동적인 존재라기보다는, 능동적으로 환경을 탐색한다고 생각하였다. 아동은 새로운 외부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바라보기, 빨기, 쥐기 등을 통해 조직화되고 효율적인 감각운동 기술을 점차 발달시킨다. 초기에는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손을 입으로 움직여서 빠는 방식으로 여러 신체활동을 조직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자신이 보거나 쥐는 대상에 어떤 의도적인 변화를 주어보려고 시도한다. 점차 숨겨진 물체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른 결과들을 관찰하기 위해 서로 다

른 행동을 의도적으로 시도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반복과 시행착오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는 인지발달을 통해 감각운동의 발달이 이루어지면 자신의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어떤 사물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즉 대상영속성 또는 대상항상성을 아는 상태로 발전한다고 하였다. 이는 자신의 시야에서 없어졌던 것이 다시 나타나기 때문인데, 아동의 입장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그 물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즉, 대상영속성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양육자에 따라 인지발달이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을 만큼의 아동들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엿 볼 수 있다.

이러한 근거들에 의하면 아동과 어머니와의 관계는 애착과 적극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정서적인 관계로 형성됨을 알 수 있다. 많은 어른들은 아동이 걸으로 나타나는 행동에만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아동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인지하고 고려하는 부모의 양육이 필요할 때이다. 인지 발달과정에서 필수적일 수 있는 아동들의 반복행동과 시행착오에 대해 부모가 허용적이고 인내심이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4. 진단 평가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정서의 표현도 발달해 가는데 성장할수록 성인의 재제를 받으면서 아동의 정서는 점차적으로 억제된다. 부모의 따뜻하고 풍부한 보살핌을 통해 아동과 부모사이의 애착이 생기며, 기본적인 신뢰감이 형성되면서 정서적 유대감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첫째, 진지한 애정과 적절한 자극을 제공해 준다. 부모는 충분한 자극과 애정에 찬 상호관계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아동의 신체적 욕구와 사랑을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어머니는 아동의 행동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 주며, 어

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관찰해야 할 것이다. 양육에 있어 양과 질의 균형이 맞아야 하며 상호 교류되는 감성적인 사랑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부모와 아동 간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룬다. 부모의 기대나 요구, 그리고 아동의 타고난 특성과 잠재력 사이의 조화가 아동의 균형 있는 발달을 위해 필요하다. 아이의 기질과 환경과의 조화도 이루어야 한다.

셋째, 아동의 사회성을 통해 정서적 발달을 증진시킨다. 타인과 인간관계를 맺고, 집단생활이나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 정서적 발달을 증진시키도록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가게 도와주어야 한다. 사회성 발달에 의한 인지발달이나 정서적 발달, 신체적 발달 등이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대인관계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해 나가면서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 지식, 태도 등을 습득하는 것을 도와줘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정서능력은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것으로서 연령에 따라 발달의 차이가 있다. 인간의 전 생애 중 영아기와 아동기는 정서능력이 발달하는 결정적인 시기이며, 이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은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의 공간인 가정이고, 가정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차지하는 비중은 부모이다. 이와 같이 부모역할은 아동의 정서적 능력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임을 인식해야 한다.

정서능력 발달은 부모의 양육형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양육자의 친밀함과 수용적인 방식은 자녀에게 나타나는 정서인식, 정서표현성,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 면에서 상관관계가 있다(김송자, 2002).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적, 수용적이고 민감할 때 아동은 과제에 관련된 정서

조절 행동 및 일상생활에서의 정서조절행동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어머니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표현은 정서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아동의 정서발달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주로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 및 애정적 양육행동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아동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병행하여 생각해야 한다. 또한 부모의 정서표현성과 정서반응성은 상호 교류적이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신의 정서표현을 통해서 아동에게 다양한 정서에 대한 모델링을 제공하고, 아동과 정서 관련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에게 정서에 대한 간접적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아동의 긍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허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아동은 무전략을 많이 사용하였고, 반면 어머니가 엄격하고 통제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아동은 공격 전략과 회피 및 지원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한편,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허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아동의 긍정적 대처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아동은 정서조절전략 간에 유의한 상관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부정적인 정서를 자주 표현하는 어머니는 자녀로 하여금 부정적이고 비조절된 행동의 모델링이 되며 자녀는 그러한 비조절된 정서유형이 사회적으로 적절하거나 효과적이라고 믿게 되어 자신의 정서조절전략으로 내재화시키며, 이는 결과적으로 아동의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을 초래하게 한다. 어머니가 아동의 정서에 대해 어떠한 태도로 반응해 주는지의 여부보다는 다양한 정서 상황에서 어머니가 어떠한 종류의 정서를 얼마나 표현하는 지에 따라 아동의 정서조절전략이 결정된다. 결국 어머니는 긍정적인 정서를 자주 표현해야 한다.

또한 아동과 교사의 관계가 갈등이 적고 친밀할수록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이 높게 나타나며, 관계가 갈등적이고 의존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분노·공격성이 많이 나타나고, 관계가 갈등적이고 친밀감이 적을수록 아동의 불안이 높게

나타난다고 한 전경아(2003)의 연구와 일치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교사-아동관계의 친밀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은 낮은 성향이 있으며, 교사-아동관계의 갈등과 의존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은 높은 성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서발달은 그대로 성격형성과 직결되어 나타난다고 본다. 다시 말하자면, 아동의 정서발달이 바로 성격형성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성격형성의 요인에는 우선,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생물학적 소질에 대한 영향도 내포되어 있지만, 아동이 양육자에 의해 정서적 안정감으로 이 시대의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가치, 지식, 기술을 습득하여 실천할 수 있는 아동발달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결함을 인식하여 실천하고자 하는데 의의를 두었으며, 또한 이것은 사회적으로나 시대적 배경에 의한 환경적인 요인으로도 정서적 성향에 많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실무를 통한 검증절차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실무에 중점을 둔 다양한 방법을 통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참고문헌

[1] 강정원·김순자, 유아의 부적응 행동과 교사의 교수적 스트레스 및 교사-유아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27(1), 17-30. 2006.

[2] 권윤정,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어머니 양육 행동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9.

[3] 김경희·황혜정, 교사의 평정에 의한 유아의 정서지능과 그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19(2), 141-156. 1999.

[4] 김순정, 어머니의 정서 표현 수용 태도와 유아의 정서적 부적응 및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5] 김송자, 부모의 양육태도 및 정서표현성과 자녀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6] 문은식·김미희,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교사-유아관계 및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생태 유아교육연구, 10(2), 59-81. 2011.

[7] 박서정·김순옥,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 및 정서 조절 능력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4), 35-53. 2005.

[8] 박응임,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애착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3), 117-129. 1998.

[9] 박주희, 아동의 또래 유능성과 관련된 어머니 양육목표, 양육행동, 또래관계 관리 전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1.

[10] 서혜린·이영,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정서 표현성이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2), 33-56. 2008.

[11] 손승희, 어머니 양육행동 및 아동의 대인관계 문제 해결력과 또래 유능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2.

[12] 안라리, 유아의 개인변인 및 어머니의 정서성과 유아의 정서발달, 사회적 능력의 관계,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3] 윤수정·신유림, 유아의 사회적 행동과 또래상호 간의 관계에서 교사-유아 관계의 매개 및 중재 효과. 2012. 전경아, 유아의 또래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가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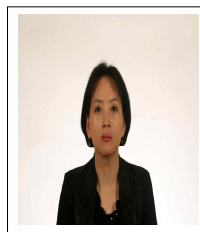
[14] 최정미,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 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22(3), 205-216. 2002.

[15] Albrecht, T. L., Burlison, B. R., & Goldsmith, D, Supportive communication. In M. L. Knapp & G. . Miller (Eds.), Handbook of interpersonal

- communication (2nd. pp. 419-449). Thousand Oaks, CA: Sage. 1994.
- [16] Abidin, R. R,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Th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0). 401-412. 1992.
- [17] Birch, S. H, & Ladd, G. W,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5(1), 61-79. 1997.
- [18] Bornstein & Tamis-Lemonda, . Mother-infant Interaction. In J. G. Bremne & A. Fogel(Eds.), *Blackwell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pp. 269-295. Blackwell publisher. 2001.
- [19] Buyse, E., Verschueren, K., Doumen, S., Van Damme, J., & Maes, F, Classroom problem behavior and teacher-child relationships in kindergarten: The moderating role of classroom climate.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6, 367-391. 2008.
- [20] Crnic, K. A. & Booth, C. L, Mothers' and father' perception of daily hassles of parenting across early child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1042-1050. 1991.
- [21] Crnic, K. A. Greenberg M. T. Minor parenting stres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1990.
- [22] Cummings, E. M., & Davies, P, Emotional security as a regulatory process in norma development and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8(1), 123-139. 1996.
- [23] Cummings, E. M., Vogal, D., Cummings, J. S., & Sheikh, M, Children's responses to different forms of expression of anger between adults. *Child Development*, 60(6), 1392-1404. 1989.
- [24] Denham, S. A, Social cognition, social behavior, and emotion in preschooler: Contextual validation. *Child Development*, 57, 368-37. 1986.
- [25] Denham, S. A, Emotional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1998.
- [26] Denham, S. A, Maternal emotional responsiveness and toddler's social emotional compet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4(4), 715-728. 1993.
- [27] Dunn, J., Brown ,J., & Bearsall, Family talk about feelings states and children's later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7(3), 448-455.1991.
- [28] Eisenberg, N., Farbon, R. A., Carlo, G., Troyer, D., Speer, A. L., Karbon, M., & Switzer, G, The relations of maternal practices and characteristics to children's vicarious emotional responsiveness. *Child Development*, 63, 583-602. 1992.
- [29] Eisenberg, N., Farbon, R. A., Schaller, M., Carlo, G., & Miller, P. A.. The relations of parental characteristics and practices in children's vicarious emotional responding. *Child Development*, 62, 1393-1408. 1991.
- [30] Eisenberg, N., & Fabes, R. A., Emotion, reg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e. In M. S. Clark (Ed.), *Emotion and social behavior: Vol. 14.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pp. 119-150). Newbury Park, CA: Sage. 1992.

- [31] Eisenberg, N., Fabes, R. A., Bernzweig, J., Karbon, M., Poulin, R., & Hanish, L., The relations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o preschoolers' social skills and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4(5), 1418-1438., 1993.
- [32] Fishbein, M. S., & Ajzen, I,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Wesley. 1975.
- [33] Fivush, R, Emotional content of parent-child conversations about the past. In C. A. Nelson (Ed.), *The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 Memory and affect in development*, pp.39-77. Hillsdale, NJ: Erlbaum. 1993.
- [34] Hartup, W. W, Peer relations. In P. H. Mussen & E. M. Hetheington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New York: Wiley. 1983.
- [35] Hoffman, M. L, Affective and cognitive processes in moral internalization. In E. T. Higgins, D. N. Rubles & W. W. Hartup (Eds.), *Social cognition and social development: A sociocultural perspective* (pp. 236-274).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 [36] Lazarus, R. S. Folkman S, Stress process and depressiv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5, 102-113. 1984.
- [37] Myers, S. S., & Pianta, R. C, Developmental commentary: Individual and contextual influences on student-teacher relationships and children's early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7(3), 600-608. 2008.
- [38] Pons, F., Harris, P. L., & Rosnay, M, Emotion comprehension between 3 and 11 years: Developmental periods and hierarchical organization.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2), 127-152. 2004.
- [39] Rudasill, K. M., & Rimm-Kaufman, S. E, Teacher-child relationship quality: The roles of child temperament and teacher-child interaction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4(2), 107-120. 2008.
- [40] Saarni, C, Indirect Processes in Affect Socialization. In M. Lewis & C. Saarni (Eds.), *The socialization of emotions* (pp.187-209). New York: Plenum Press. 1990.
- [41] Schaefer, E. S, A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Psychology*, 59. 226-235. 1959.
- [42] Tomkins, S. S, Affect, imagery, and consciousness: Vol 3. *The negative affect: Anger and fear*. New York: Springer. 1990.

이순배(Soon-Bea Lee)



- 2010년 8월 광운대학교 일 반행정대학원(행정학/사회복지)
- 2008년 -현재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외래교수
- 2012년-현재 (주)한국보육교 사교육원 교학처장

· 관심분야 : 행정, 사회복지, 보육
· E-Mail :sun2top@hanmail.net

김민정(Min-Joung Kim)



- 1998년 2월 : 송의여자 대 학 유아교육과 졸업
- 2003년 2월 : 한국방송통신 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졸업

- 2005년 2월 :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졸업
- 2010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보육 및 교육박사 수료
- 현재 : 동명블루밍어린이집 원장
- 관심분야 : 영유아보육학, 아동보육학
- E-Mail : kjskinder@hanmail.net